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김 은 경[†]

엄 애 선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이 연구는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성장후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시내 남자 대학생 193명, 여자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목격,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측정하였다.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SEM)을 통해 적합도를 검증하고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자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관련하여, 가정폭력 목격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역할태도를 매개로 가해경험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관련하여, 가정폭력 목격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매개로 피해경험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자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가정폭력 목격,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데이트 성폭력

[†] 교신저자 : 김은경,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Tel : 02-2220-1444, E-mail : enkkim@hanyang.ac.kr

다양한 폭력문제 중에서도 특히 간과되기 쉬운 것이 데이트 성폭력이다.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보거나, 연애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사소한 성적 갈등 정도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데이트 성폭력은 초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손승아, 2004; 장윤경, 2002). 그리고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만성화되어 피해 당사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성폭력 자체가 소수의 병적인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드문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후 성폭력이 심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인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으며 상당히 빈발하는 범죄임이 밝혀졌고, 데이트 관계에서도 성폭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박종렬, 노상욱, 2008). 국내의 경우,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신고된 성폭력 피해사례 중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는 전체의 10.7%에 불과했고, 85%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데이트 성폭력은 전체의 8.7%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에 비해서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Amir, 1971), 피해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박종렬, 노상욱, 2008; 신성자, 1993) 때문이다.

데이트 성폭력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의는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지연과 이은설(2005)은 데이트 성폭력을 ‘성적

으로 흥미를 가진 파트너가 상대방의 거부를 수용하기를 거절하고, 성적 응락을 받아내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장윤경(2006)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성희롱, 성추행, 강간미수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데이트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강간이 아닌 강간미수만을 데이트 성폭력에 포함시킨다면(장윤경, 2006), 데이트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인 강간을 데이트 성폭력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넓은 의미의 성폭력 범주 안에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데이트 성폭력에는 이러한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적인 응락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을 전제로 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데이트 성폭력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설득력있는 것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폭력 등 공격적인 행위는 관찰학습, 즉 모델링과정을 통해 획득된다(Bandura, 1973). 폭력에 대한 모델링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일차적인 양육 현장인 가정이다. 즉, 아동기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격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간접학습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성인이 된 후 데이트 관계에서 입장 차이나 욕구 차이에 의한 갈등이 발생할 때 그 해결 방법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김

예정, 김득성, 1999).

실제로도 성장기에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후 성폭력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미, 김현옥, 2001;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2007; 장희숙, 2002). 또 부모의 폭력을 자주 목격한 자녀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았고, 성적 폭력을 사용하는 확률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Gwartney-Gibbs et al., 1987; Kalmus, 1984; Marshall & Rose, 1988; O'Keefe et al., 1986; Riggs et al., 1990). 또한 가정폭력 목격은 자녀의 데이트폭력 가해행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여서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였다(유선영, 2000). 또한 성폭력을 포함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비율이 더욱 높았다(서경현, 안귀여루, 2007). 결국 부모간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 성장하여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인 데이트 상대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장희숙, 2002).

이렇게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이후 성장한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꼽히는 한 가지가 바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이다. 성역할(sex roles)이란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각기 다르게 기대되고 장려된 행동유형을 말한다. 이런 기대와 장려에 의해 남녀는 각기 다른 행동유형으로 훈련되어 성장한다(David & Brannon,

1976).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란 그러한 성역할태도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성별에 따라 순결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잣대를 달리 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경시하며, 남성은 공격적, 주도적인 반면 여성은 의존적, 피동적인 존재라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근본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오해, 성 차별성, 성에 대한 이중규범 등을 바탕으로 한다.

성역할 태도는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학습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을 모델로 하여 형성된다(윤진, 1981). 이런 점에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양육자인 부모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는 그런 상황을 통해 성역할관념을 내면화하여 가부장적이고 성 차별적인 성역할태도를 형성하기 쉬울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현혜순(2005)은 자녀의 성역할태도가 남녀차별적이고 가부장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가정폭력의 목격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자녀는 단순히 폭력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를 목격하면서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까지 학습하게 된다. 즉,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남성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위의 존재인 반면에 여성은 힘이 없고 무력하며 폭력을 참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학습한다. 남성은 권력자이고 주체적인 존재인 반면 여성은 피해자이고 종속적인 존재인 것으로 성역할이 각인되는 것이다(현혜순, 2005).

Gelles와 Straus(1979) 역시 가정이 폭력을 배

우는 최적의 장소이자 당면한 문제에 대한 폭력적인 문제해결을 학습하는 장소임을 지적했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경험은 가까운 관계에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성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Lichte와 McCloskey의 연구(2004)에서도 드러났다. 그들에 따르면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딸은 정상적인 남성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특히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남성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남성의 우월성을 과인정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자녀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자녀는 장차 이성 파트너에게 데이트 성폭력을 당하거나 데이트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손승아, 2004; 신성자, 1997; Muehlenhard & Linton, 1987)도 전통적이고 경직된 성역할 관념이 데이트 성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남녀관계에서 남자는 주도적,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강조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Lichte & McCloskey, 2004). 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Wheeler, 2003), 성에 대한 왜곡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Greendlinger & Byrne, 1987) 강압적인 성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들은 성적 피해에 취약해지는데, 이는 성역할 고정

관념이 성적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단호한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Bters, 1996).

국내연구에서도 성적 공격성에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강간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신성자, 1997). 성역할 태도는 성폭력 가해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성역할 태도에서도 더 보수적이고(남현미, 2003), 성 차별적인(김시업, 김정인, 2005)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필선(1995)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대학생이 더욱 남성적일수록 성폭력 가해경험도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자녀가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에 의해서 장차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행위를 하게 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데이트 성폭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두 가지 입장인 사회학습이론과 여성주의적 입장을 통합한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여성주의적 입장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성역할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성 차별과 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강희순, 2009; 남현미, 2003; 정희진, 2000).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직접 전수되는 것은 가정 안에서이다. 즉, 자녀는 부모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역할을 학습하고, 자기와 다른 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방학습의 효과를 유발

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통해서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성역할인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태도가 성장후 이성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 목격과 데이트 성폭력, 성역할태도와 데이트 성폭력의 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 상관이 없었던 것에 반하여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O'Keefe, 1997). 또 왜곡된 성규범이나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더욱 관용적이고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Greendlinger & Byrne, 1987).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데이트 성폭력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며, 남자는 이러한 과정이 주로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여성은 피해경험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은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지속적이고, 이후의 성적 자기결정이나 이성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Levy, 1991). 데이트 성폭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주로 성인 초기인 2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손승아, 2004). 친밀감의 형성이 주요과제인 20대의 이성교제는 이성간에 친밀감을 형성하여 이후의 결혼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 발생배경과 경로를

알 수 있다면, 데이트 성폭력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의 관련 연구는 주로 가정폭력 경험과 성폭력의 관계(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2007; 서경현, 2004), 또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서경현, 최수동, 김익현, 2007; 유선영, 2000; 이지연, 오경자, 2007)에 대한 것이었으며, 데이트 성폭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발생기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서 특히 가정폭력 목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부모간 폭력의 목격이 자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후에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관련하여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아들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역할태도가 매개역할을 해서 남자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를 유발할 것이다. 둘째,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련하여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딸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역할태도가 매개역할을 해서 여자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내 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17세부터 29세까지 분포했고, 평균 나이는 만으로 21.4세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50.4%로 193명, 여자가 49.6%로 190명이

었다. 형제순위로는 첫째가 40.5%, 둘째나 막내가 49%, 외동은 10.5%였다. 가족상황을 보면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재혼한 가정은 11%였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89%였다. 주거상황을 보면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3.3%, 그 외 하숙이나 자취, 친척집, 기숙사 등에서 지내는 경우가 46.7%로 나타났다. 하숙, 혼자나 친구와 함께 자취, 친척집, 기숙사 거주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는 하숙(14.9%)과 혼자서 자취(12.5%)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원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출신지역으로 정의해서, 출신지역은 서울이 33.7%, 수도권이 25.8%, 서울이나 수도권 외 대도시가 25.8%, 중소도시가 14.6%, 그밖의 지역이 9.7%로 나타나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 출신이 전체의 74.2%에 달했다.

측정도구

가정폭력 목격

가정폭력 목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1979)의 CTS(The Conflict Tactics Scale)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목격, 즉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경미한 신체폭력 목격 4문항과 심각한 신체폭력 목격 6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경미한 신체폭력 목격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세계 밀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수준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반영하며, 심각한 신체폭력 목격은 물건을 사용해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전혀 없다’, ‘이제까지 한두 번’,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거의 매주 한번씩’의 범주 안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과정에서 부모간의 폭력을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경미한 신체폭력 목격이 .872, 심각한 신체폭력 목격이 .933으로 나왔다. 전체 가정폭력 목격 척도의 신뢰도는 .930이었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CTSII에 포함된 성폭력 관련척도와 김성희 (1998), 김예정, 김득성(1999), 남현미(2003), 장윤경(2000), Smallbone과 Dadds(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트 성폭력 관련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는 총 12문항이며, 데이트 강간에 관련된 내용 4문항, 데이트 성추행에 관련된 내용 4문항, 데이트 성희롱에 관련된 내용 4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데이트 상대자에게 각각의 성폭력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없다’, ‘이제까지 한두 번’, ‘이제까지 서너 번’,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열 번 이상’의 범주 안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데이트 강간 가해경험이 .954, 데이트 성추행 가해경험이 .897, 데이트

성희롱 가해경험이 .718로 나왔다. 전체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척도의 신뢰도는 .935였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위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다만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데이트 상대자에게 각각의 성폭력 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데이트 강간 피해경험이 .819, 데이트 성추행 피해경험이 .861, 데이트 성희롱 피해경험이 .819로 나왔다. 전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척도의 신뢰도는 .896이었다.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영(1989), 신성자(1997), 김은주(1997), 장운경(200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 관련 척도와 Bem의 'Bem Sex-Role Inventory:BSRI(1981)'를 참고로 하여 성역할 태도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과정에서 성문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성적 공격성에 대한 내용 3문항, 성 차별적 태도에 관련된 내용 4문항, 보수적 성역할 관념에 관련된 내용 3문항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성적 공격성은 남성의 성적 공격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성 차별적 태도는 성별에 따라 순결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잣대를 달리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경시하는 내용으로, 보수

적 성역할관념은 남성은 공격적, 주도적인 반면 여성은 의존적, 피동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는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완전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약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의 범주 안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고 성 차별적 태도와 보수적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성적 공격성이 .723, 성 차별적 태도가 .669, 보수적 성역할 관념이 .732로 나왔다. 전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856이었다.

자료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예측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지표의 적합성 여부는 홍세희(2000)의 연구를 토대로 TLI, CFI, GFI, RMSEA를 선택하여 판단하였다.

결 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빈도와 백분율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의 빈도와

표 1.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빈도와 백분율

	남자의 가해경험 (n=193)		여자의 피해경험 (n=190)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데이트성희롱	53	27.5	61	32.1
데이트성추행	44	22.8	52	27.4
데이트강간	23	11.9	23	12.1
총 데이트 성폭력	66	34.2	70	36.8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데이트 성희롱 가해경험을 보고한 남자는 27.5%로 조사대상자의 약 4분의 1 정도의 남자가 데이트 성희롱 가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여자의 32.1%가 데이트 성희롱 피해경험을 보고했다. 데이트 성추행 관련하여 남자의 22.8%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한편, 여자의 27.4%가 데이트 성추행 피해경험을 보고했다. 데이트 강간 관련하여 남자의 11.9%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한편, 여자의 12.1%가 데이트 강간 피해경험을 보고했다. 전체 데이트 성폭력 관련하여, 남자의 34.2%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한편, 여자의 36.8%가 크고 작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보고했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관찰변수간의 상관계수와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체로는 변수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 성 차별적 태도와 데이트 성추행 가해경험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남자는 성별에 따라 순결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잣대를 달리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데이트 성추행 가해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여자의 경우, 성 차별적 태도와 데이트 성희롱 피해경험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여자가 성별에 따라 순결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잣대를 달리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데이트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남자 집단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모형 검증

남자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관련하여, 가정폭력 목격이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역할태도를 매개로 가해경험을 유발한다는 모형을 만들고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976, GFI는 .954, TLI는 .961,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82(90%, 신뢰구간 .047-.116)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표 2. 각 관찰변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M	5.15	4.82	5.08	5.83	8.03	3.46	4.4895	3.37
SD	1.93	1.79	2.29	2.45	3.16	1.156	1.639	1.47
1	1	.864**	.280**	.207**	.189**	.488**	.544**	.542**
2	.881**	1	.326**	.234**	.200**	.575**	.637**	.623**
3	.165*	.231**	1	.667**	.585**	.285**	.404**	.407**
4	.178*	.191**	.557**	1	.632**	.129	.249**	.239**
5	.208**	.229**	.668**	.609**	1	.181*	.321**	.292**
6	.435**	.395**	.376**	.181*	.358**	1	.692**	.675**
7	.350**	.386**	.361**	.080	.325**	.683**	1	.891**
8	.439**	.452**	.354**	.115	.329**	.721**	.754**	1
M	5.64	5.36	5.4197	6.46	8.05	3.65	4.80	3.44
SD	2.39	2.31	2.27	2.53	2.98	1.46	2.18	1.52

** p<.01, * p<.05

1= 경미한 폭력목격, 2=심각한 폭력목격, 3=성적 공격성, 4=성 차별적 태도, 5=보수적 성역할관념, 6= 데이트 성희롱, 7=데이트 성추행, 8=데이트 강간

대각선 우측 상단은 여자집단(n=190), 좌측 하단은 남자집단(n=193)

표 3. 남자 집단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RMSEA	TLI	CFI	GFI
연구모형	38.713	17	.082	.961	.976	.954

남자 집단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모형 경로확인

가정폭력 목격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그림 1, 표 4와 같다. 유의한 경로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목격은 남자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beta=.276, p<.001$)에 영향을 미치고,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beta=.319, 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될

수록 더욱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갖게되고, 이로 인하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효과의 분해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 방식(Shrout & Bolger, 2002)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목격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통해서 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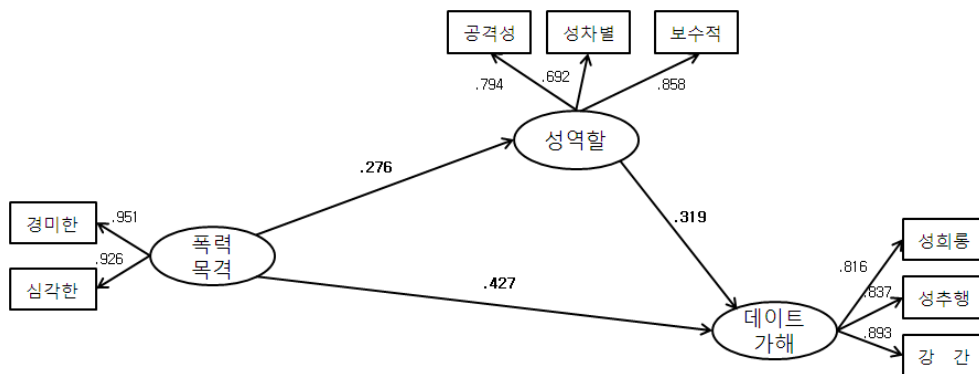


그림 1. 남자 집단의 가정폭력 목격이 성역할태도를 매개로 데이트 성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경로계수

표 4. 남자 집단의 비표준화,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가정폭력 목격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227	.067	3.395	.276***
가정폭력 목격 → 데이트 성폭력가해	.232	.041	5.671	.427***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 데이트 성폭력가해	.211	.051	4.126	.319***

*** p<.001

성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BC(.018, .122)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가정폭력 목격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통하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효과를 보면,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대한 가정폭력 목격의 총효과가 .515였으며, 가정폭력 목격이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통해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088로 나타났다.

표 5. 남자 집단의 변수의 효과 분해

모형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정폭력 목격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227 (.276)	-	.227 (.276)
가정폭력 목격	→ 데이트 성폭력가해	.232 (.427)	.048 (.088)	.280 (.515)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 데이트 성폭력가해	.211 (.319)	-	.211 (.319)

표 6. 여자 집단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RMSEA	TLI	CFI	GFI
연구모형	17.297	17	.010	.999	1.000	.978

여자 집단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모형 검증

여자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관련하여, 가정폭력 목격이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매개로 피해경험을 유발한다는 모형을 만들고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1.000, GFI는 .978, TLI는 .999,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10(90%, 신뢰구간 .000-.067)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여자 집단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모형 경로확인

가정폭력 목격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그림 2, 표 7과 같다. 유의한 경로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목격은 여자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beta=.328, p<.001$)에 영향을 미치고,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beta=.205, p<.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될 수록 더욱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효과의 분해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 방식(Shrout & Bolger, 2002)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목격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통해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BC(.011, .089)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가정폭력 목격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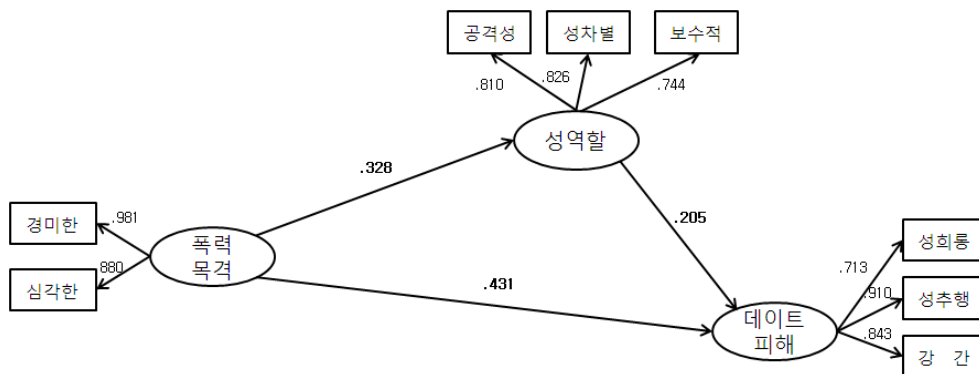


그림 2. 여자 집단의 가정폭력 목격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매개로 데이트 성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경로계수

표 7. 여자 집단의 비표준화,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가정폭력 목격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347	.086	4.012	.328***
가정폭력 목격 → 데이트 성폭력피해	.239	.047	5.044	.431***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 데이트 성폭력피해	.107	.043	2.526	.205*

*** p<.001, * p<.05

표 8. 여자 집단의 변수의 효과 분해

모형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정폭력 목격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347 (.328)	-	.347 (.328)
가정폭력 목격	→ 데이트 성폭력피해	.239 (.431)	.037 (.067)	.276 (.498)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 데이트 성폭력피해	.107 (.205)	-	.107 (.205)

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통하여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였고, 결과는 표 8 과 같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효과를 보면,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대해 가정 폭력 목격의 총효과가 .498이었으며, 가정폭력 목격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통해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067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는 가정에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자녀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매개역할을 해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데이트 상황에서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게 하거나, 성적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등의 데이트 성희롱의 경우, 조사대상 남자의 28%가 가해경험을, 여자의 32%가 피해경험을 보고했다. 즉, 세 명 중 하나 꼴로 데이트 성희롱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지거나, 키스나 애무를 하거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데이트 성추행은 남자의 23%가 가해경험을, 여자의 27%가 피해경험을 보고했다. 대략적으로 대학생의 서너 명 중 하나는 데이트 성희롱이나 데이트 성추행 경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조사대상자가 주로 20대 초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이성교제 경험이 증가하면 이 수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데이트 성희롱과 데이트 성추행에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자의 피해경험이 남자의 가해경험보다 더 높게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그것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데이트 성추행 가해경험과 여자의 피해경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상대를 성추행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이 데이트 성추행을 범한 남자들의 숨은 가해 수치(數値)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쪽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데이트 강간에 관련해서는 남자의 12%가 가해경험을, 여자의 12%가 피해경험을 보고했다. 데이트 강간 비율에서는 남녀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강간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비하여 상황이 명확하여 가해나 피해 경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결국 열 명 중 하나는 데이트 상황에서 강간을 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남자의 34%와 여자의 37%가 크고 작은 데이트 성폭력 경험을 보고했다. 이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남녀 학생의 3분의 1정도가 데이트 성폭력 가해나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는 대학생의 23% 정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보고한 바 있다(Luthra & Gidycz, 2006; Wetzell, 2006). 국내의 경우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21%(장윤경, 2002), 43%(백주현, 2006) 등으로 정의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가해경험에 관련해서, 국내연구에서 대학생의 38%(남현미, 2003)가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을 보고하기도 했다.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 인해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체로 20대 대학생들의 30% 정도에서 크고 작은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가 결혼 후 가정폭력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박옥임, 2004)를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둘째,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관련해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아들의 데이트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목격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매개역할을 해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부모간의 폭력사용에 노출시키는 것 만으로도 아들들은 성역할태도와 데이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경우, 아동기에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성장 후 데이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arlson, 1990). 또한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성장후 결혼관계에서 아내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폭력을 가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경규, 1994). 이번 연구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 그 자체가 모방학습의 효과를 불러와서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한편 부모간 폭력 목격이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유발하고 이

것이 데이트 성폭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역할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남자 혹은 여자로서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자신과 파트너의 역할을 규정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 전반에 관련된다. 그런데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아들에게 폭력 허용적이고 여성 경시적인, 그리고 남녀차별적인 성역할태도를 형성하게 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간 폭력 목격이 여자는 순결해야 하고 성적으로 주도적이거나 능동적이어서는 안 되며, 남자가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 또 여자는 의존적, 피동적인 존재인 반면에 남자는 공격적, 주도적인 존재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데이트 성폭력 가해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는 데이트 상황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몸을 만지거나 강제적인 성관계 하는 등의 데이트 성폭력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남녀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인 태도로 인하여, 부부폭력의 목격자인 그 아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데이트 성폭력 가해 행위만이 아니라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련해서도, 역시 가정폭력 목격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폭력에 의해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그 집안의 아들만이 아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딸 역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매 맞고 욕먹고 학대받는 것을 바라보

며 성장한다. 그러면서 남성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고 권력자인 반면에 여성은 피해자이고 종속적인 존재로서 폭력을 참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학습한다(현혜순, 2005). 이러한 학습으로 인해 그 딸들은 성장후 데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성폭력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되고, 결국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연구(Lichte & McCloskey, 2004)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딸들은 정상적인 남성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그들은 남성을 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했으며, 자기중심적인 남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자를 의존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형성한다는 이번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딸들은 남자의 성적 공격성을 인정하는 경향,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경시하며 순결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이 가장 가깝게 보아 온 남자인 아버지의 폭력은 그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성역할태도를 암암리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간접적인 피해자인 딸에게 형성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결국 데이트 상대자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심지어는 강간을 해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 피해가 이후의 가정폭력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데이트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자녀의 왜

곡된 성역할태도와 데이트 성폭력 문제는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성역할태도와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험만으로도 성장후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형성하고, 파트너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트 성폭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 균형잡힌 성역할태도를 갖게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것이 성폭력의 가해문제든 피해문제든 간에 당사자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차별적이고 여성을 경시하는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데이트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와 상담할 때에는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여기 관련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연구는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를 남자로, 피해자를 여자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실적으로 남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더욱 우세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 문제나 그 양상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인 여자나 피해자인 남자의 비율이나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주로

만 19세에서 23세 사이에 몰려있어서 성인초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 데이트 성폭력 가해나 피해 경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성역할태도가 가해나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차를 두어 20대 초반과 중반, 후반으로 구분하여 데이트 성폭력 문제를 연구한다면 더욱 설 명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희순 (2009).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모형구축.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희 (1998). 전남지역 여대생의 성폭력경험 실태. 한국가정과학회지, 1(2), 37-47.
- 김시업, 김정인 (2005). 아내구타와 그 가해자: 구타과정 및 가해자의 심리 행동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653-676.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용미, 김현옥 (200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 김은주 (1997).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2007).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

- 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7, 27-52.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문제 시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김필선 (1995). 성폭력의 행위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폭력인지도와 가해·피해 실태연구. 학생생활연구, 15(1), 131-144.
-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옥임, 도미향, 류도희, 박애선, 백경숙, 정정현, 이규미, 이영석 (2004).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 박종렬, 노상욱 (2008). 데이트 강간의 여성 인식에 관한 문헌통계학적 접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집, 13(6), 287-294.
- 백주현 (2006). 대학생의 인구 통계적 변수, 데이트 관련변수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데이트 폭력 경험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77-96.
- 서경현, 최수동, 김익현 (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53-170.
- 손승아 (2004). 대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건강교육: 데이트 성폭력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5(2), 87-103.
- 신성자 (1993). 데이트 강간에 대한 남·여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남법학, 5, 157-176.
- 신성자 (1997).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2, 181-211.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진 (1981). 남녀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한 고찰: 성역할 사회화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5(1), 21-35.
- 이지연, 오경자 (200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33-450.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 장윤경 (2000).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 사례.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29-237.
- 장윤경 (2002).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윤경 (2006). 유형별 성폭력: 데이트, 스토킹.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148-154.
- 장희숙 (2002).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 131-155.
- 정희진 (2000).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여성학논집, 17, 323-325.
- 현혜순 (2005). 아내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

- 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여성주의 인지행동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mir, M. (1971). *Patterns of for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m, S. L. (1981). *A manual for the Bem Sex Role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Byers, E. S. (1996). How well does the traditional sexual script explain sexual coercion? Review of a program of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8, 7-25.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David, D., & Brannon, R. (1976). The male sex role: Our culture's blueprint of manhood, and what it's done for us lately. In David, D. & Brannon, R. (Eds.), *The forty-nine percent majority: The male sex role* (pp.1-45).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Kalmu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11-19.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5-39.
- Greendlinger, V., & Byrne, D. (1987). Coercive sexual fantasies of college men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likelihood to rape and overt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Sex Research*, 23, 1-11.
- Gwartney-Gibbs, P. A., Stockard, J., & Bohmer, S. (1987). Learning courtship aggression: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36, 276-282.
- Levy, B. (1991). Support groups: Empowerment for young women abused in dating relationships. In B. Levy (Ed.),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pp.232-239). Seattle, WA: Seal Press.
- Lichter,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344-357.
- Luthra, R., & Gidycz, C. A.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717-731.
-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courtship abus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414-418.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86-196.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Brockopp, K., & Chew, E. (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56-468.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allbone, S. W., & Dadds, M. R. (2001). Further evidence for a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insecurity and coercive sexual behavior in non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 22-35.
- Wetzel, K. M. (2006).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ppalachia: A study of relationship violence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in Southern Appalachi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6(10-B), 5698.
- Wheeler, J. G. (2003). The Abstinence Violation Effect in a sample of incarcerated sexual offenders: A reconsideration of the terms Lapse and Relaps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63(8-B), 3946.

1 차원고접수 : 2010. 10. 12.

심사통과접수 : 2010. 11. 27.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3.

The Mediate Effect of Patriarchal Attitudes between Family Violence Witness and Dating Sexua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im, Eun Kyung

Om, Ae Son

Hanyang University, Center for Gender Equal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patriarchal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witness and dating sexual violenc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83 college student (193 males and 190 females) who had the experience of dating relationship.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Witness of Family Violence, Patriarchal Attitudes, Dating Sexual Violence Experiences. In order to verify the models, goodness of fit and significant paths were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ccording to the results, family violence witness, itself, had influence on male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and patriarchal attitudes caused by family violence witness had influence on dating sexual assault. Also, family violence witness had influence on female students' dating sexual violence, and patriarchal attitudes caused by family violence witness had influence on dating sexual violence.

Key words : Witness of Family Violence, Patriarchal Attitudes, Dating Sexual Violence